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2016년 8월 6일(토)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배포 즉시	담당부서	아주통상과/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
담당과장	김대자 과장 (044-203-5710)	담 당 자	정의라 사무관 (044-203-5713)
	김영만 과장 (02-734-1864)		박성희 사무관 (02-734-1870)

아세안(ASEAN)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

◎ 「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」 추가자유화협상 공식화 및 상품협정의정서 발효

◎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협상 가속화를 위한 상품·서비스·투자 자유화 수준 등 주요 쟁점 논의

◎ 아세안(ASEAN)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 사업,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아세안 신규협력사업 추진

◎ 한-아세안 기업인협의회(Business Council) 개최 및 한-아세안 상의간 협력사업 제안

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.8.4.(목)~5(금)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(ASEAN) 관련 경제장관회의(한-아세안(ASEAN), 아세안(ASEAN)+3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,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 경제장관회의)에 참석해, 한-아세안자유무역협정(한-ASEAN FTA)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및 아세안(ASEAN)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
*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: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:
* 동아시아정상회의(EAS: East Asia Summit) ASEAN, 한·중·일, 미국, 러시아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(18개국)

○ 주장관은 또한 이세안(ASEAN) 경제장관회의 참석계기에 중국, 러시아, 호주 경제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양자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, 동남아 지역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현지 사업 환경과 기업애로 사항을 들었다.

구 분	국 가
아세안 (ASEAN)	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 (총 10개국)
아세안(ASEAN)+3	**한국**, 중국, 일본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(RCEP(ASEAN+6))	호주, 뉴질랜드, 인도
동아시아정상회의 (EAS (ASEAN+8))	미국, 러시아

1.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ASEAN FTA) 추가자유화협상 공식화,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ASEAN FTA)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발효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협상 주요 쟁점 논의

□ 8.4(목)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3차 한-아세안(ASEAN) 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아세안(ASEAN) 10개국 경제장관들은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ASEAN FTA)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.

○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ASEAN FTA)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되었으나, 협상의 핵심인 '관심품목 교환'이 금번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한국과 태국, 싱가포르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협상이 공식화됐다.

□ 작년 8월 말레이시아 한-아세안(ASEAN)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한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ASEAN FTA)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, 미얀마, 싱가포르, 라오스, 필리핀,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(ASEAN) 6개국 간에 발효됐다.

○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수출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유무역협정(FTA)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허용, 상호주의 폐지, 연도별 관세감축 일정 등을 구체화했다.

* **(발효현황)** 한국-태국 ('16.1.1), 한국-미얀마 ('16.2.11), 한국-싱가포르 ('16.4.6), 한국-라오스 ('16.6.10), 한국-필리핀('16.7.14), 한국-말레이시아 ('16.7.26) / 여타 국가는 국내절차 완료 및 통보시점부터 발효

<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주요내용>

○ **(무역원활화 규정 도입)** 전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, 관세/통관 관련 법령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등 관련 기업이 자유무역협정(FTA)를 보다 쉽게 활용토록 함

○ **(상호주의 제도 개선)** 수입국이 자유무역협정(FTA)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*를 베트남 등 6개국과 폐지하고, 인니 등 4개국은 적용 품목 확대 금지

* 수입국이 본래 자유무역협정(FTA)협정관세보다 수출국의 관세만큼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

○ **(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첨부)** 수출입업자가 국가별 '16~'24년간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 자유무역협정(FTA)세율 정보표를 협정에 첨부

□ 8.5.(금) 개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4차 장관회의에서 16개국 장관들은 작년 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장관회의('15.8.24) 이후 그간의 상품·서비스·투자 분야 시장접근 협상과 경제기술협력, 원산지 등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의 진전을 평가했다.

○ 장관들은 작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정상 공동선언문('15.11.22)의 협상 가속화 및 2016년 타결 노력 지침을 감안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협상 진전을 위해 상품·서비스·투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지침을 집중 논의하고 협상 가속화 노력을 촉구함

○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평가하고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해야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.

2. 기술애로 지원사업, 친환경 에너지타운, 한-아세안(ASEAN) 기업인협의회 등 대(對) 아세안(ASEAN) 협력사업 추진

□ 주형환 장관은 아세안경제공동체(ASEAN Economic Community) 출범 계기 한-아세안(ASEAN)간 교역투자확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.

< 한-아세안(ASEAN) 경제협력 현황 >

○ **(교역규모)** ('05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이전) 535억 달러 → ('15) 1,198억 달러(ASEAN 통계 1,229억 달러)

* '15년 기준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, 한국은 아세안(ASEAN)의 제5위 교역대상지

○ **(대(對) 아세안(ASEAN) 투자)** ('05년 누계) 131억 달러 → ('15년 누계) 703억 달러

* 한국은 ASEAN의 제5위 투자국

□ **(기술애로 지원 사업(TASK)** 주장관은 한국의 기술전문가가 아세안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 기업간 협업을 지원하는 **'기술애로 지원 사업(TASK: Technology Advice & Solutions from Korea)'**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의 참여를 요청했다.

○ 아세안 회원국들은 각국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적정 기술을 지원하는 **기술애로 지원 사업(TASK)**의 유용성에 공감하고, 한국이 향후 사업 대상국가와 대상사업을 확대해주기를 희망했다.

□ **(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)** 주장관은 아세안의 태양광, 풍력,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결합하여 전력을 생산·소비함으로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, 동시에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이룰 수 있는 **'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'**을 아세안과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.

○ 아세안(ASEAN)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이 아세안 지역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, 특히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 등은 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였으며 캄보디아는 수자원 관리도 사업범위에 포함해주기를 희망함

□ **(한-아세안 기업인협의회)** 한국과 아세안 상의 대표는 8.3(수) 비엔티안에서 제3차 한-아세안 기업인협의회(Business Council)를 열고 업종별 분과위 설치 등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.

* 한-아세안 기업인협의회(Business Council) : 한-아세안 민간경제협력체, 2014년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1차 회의 개최(사무국 : 대한상의)

- 2013.8.3.(수) 비엔티안 제3차 회의 결과(3가지 협력사업 제안)
  ① 업종별 분과위 설치(식품, 화장품, 3D프린팅, 사물인터넷 등)
  ② 한-아세안 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실시(아세안 기업인 초청 및 한국기업 사절단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여 사업 기회 창출),
  ③ 한-아세안 기업인협의회(Business Council) 공식 홈페이지 구축(비즈니스 정보제공, 애로 접수)

○ 이와 관련 주장관은 특히 식품, 화장품 등 **업종별 분과위원회 설립**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업종별 시장정보, 검사·통관·검역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, 한국과 아세안 기업간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.

○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캄보디아, 태국, 필리핀,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은 상의간 협력사업을 환영하고 한-아세안 고위경제관료회의(SEOM)에서 진전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는 후속조치를 제안하는 등 협력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진했다.

3. 보호무역주의 대응, 비관세장벽 완화,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

□ **(보호무역주의 대응)** 8.5(금)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 경제장관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은 **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**에 **우려**를 표하고,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정상회의(차원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, 영국의 유럽연합(EU) 탈퇴 이후 상황별 대응전략 마련을 제안했다.

* 동아시아정상회의(EAS: East Asia Summit) : 아세안(ASEAN), 한·중·일, 미국, 러시아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(18개국)

○ 한국 제안에 대해 호주, 뉴질랜드, 일본 등 대표는 적극 찬성 의견을 보이고 아세안경제조사연구소(ERIA)의 연구 착수를 요청했다.

* 아세안경제조사연구소(ERIA: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) -동아시아 경제통합, 개발격차해소, 지속가능발전, 인적자원개발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(ASEAN 한, 중, 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미국, 러시아) 싱크생크

□ **(비관세장벽 완화)** 8.4(목) 제13차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주장관은 세계무역기구(WTO), 자유무역협정(FTA) 등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, **비관세장벽은 증가**하고 있다고 언급하고,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력을 확산시켜나갈 것을 제안했다.

○ 이를 위해 한-아세안한-아세안 기업인협의회(Business Council) 산하에 식품,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, 민간차원의 업종별 논의 플랫폼을 통해 계기로기술장벽(TBT)·위생검역(SPS)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.

* 2000년에 비해 2015년 아세안 역내 평균 상품관세율은 8%에서 4%로 하락한 반면, 비관세장벽은 1,500개에서 6,000개로 4배 이상 급증

□ **(전자상거래 활성화)** 8.4(목) 제19차 ASEAN+3 경제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(EABC)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① 역내포괄절 경제동반자협정(RCEP) 전자상거래 협상시 동아시아 공급사슬(Supply Chain) 고려, ② 아세안(ASEAN)+3 회원국내에서 저비용상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, ③ 이페이먼트시스템(e-payment system)이 가능하도록 표준화, 공동규제기관 설립, 사기방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.

*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(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): 아세안(ASEAN)+3 민간단체 대표(상공회의소 부회장급)로 구성, 역내 경제현안・협력방안 등 민간의견을 정부에 전달

○ 이에 대해 주장관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역내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작년 11월 한·일·중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**3국간 디지털 싱글마켓 이니셔티브를 아세안(ASEAN)+3로 확대하는 방안**을 제시했다.

<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이니셔티브 >

○ 한중일은 역내 경제통합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규제와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, 궁극적으로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합의한다.

①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3국 공동연구 실시

②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3국 장관급 협의체 및 실무추진 T/F 구성

③ 디지털시장 단일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

4. 양자 경제장관회담을 통한 통상현안 논의

□ **(중국)** 주형환 장관은 8.4.(수) 16:30~17:00간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,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성과 극대화를 위한 이행과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서비스·투자 분야 협상 등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○ 또한, 한중 산업협력단지, 제3국 공동진출, 투자협력기금 등 작년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**(러시아)** 8.4(목) 17:30~18:00간 주 장관은 러시아 울류카예프(Alexei Ulyukayev) 경제개발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,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, 기업 애로사항 해소, 주요 프로젝트 협력, 한-유라시아경제연합 저유무역협정(EEU FTA) 공동연구, 2017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(ASEM) 경제장관회의 한국개최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.

□ **(호주)** 8.5(금) 15:45~16:00간 주 장관은 호주 치오보(Steven Ciobo) 통상관광투자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, 한-호주 자유무역협정 이행, 광물자원협력, 2017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(ASEM) 경제장관회의 한국개최 등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5. 기업인 간담회 개최

□ **(하노이 진출기업 간담회)** 주형환장관은 8.3(화) 13:00 하노이에서 현지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수출전망, 인프라 확충, 한국어 구사 가능 베트남 인력 양성 및 베트남어 구사 가능 한국 인력 양성 등 현지기업 관심사항을 들었다.

○ 주장관은 글로벌 경기부진 속에서도 수출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지기업들의 활동을 격려하고, 공적개발원조(ODA)를 활용한 인력 양성 지원 등 현지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.

□ **(호치민 진출기업 간담회)** 주형환 장관은 8.6(토) 호치민에서 씨제이(CJ) 오쇼핑 및 롯데마트를 방문하여 한국소비재의 베트남 시장 진출 현황을 돌아보고 호치민 지역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투자애로 사항을 들었다.

□ **(아세안(ASEAN) 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)** 주장관은 8.3(화) 19:00 비엔티안에서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한인상의 회장단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국 경제 현황 및 비자갱신요건완화·한국금융기관진출지원 등 업계 요청사항을 들었다.

○ 주장관은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, 양자협의계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아세안(ASEAN) 국가 경제장관들에게 전달했다.

*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아세안 각국의 경제상황 및 주요이슈, 현지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개최됨

6. 2017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(ASEM) 경제장관회의 개최 준비활동

□ 주형환 장관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몽골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(ASEM) 정상회의에서 내년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하고, 아세안 등 참석국에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정의라 사무관(044-203-5713) /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박성희 사무관(02-734-1870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